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인터플렉스 (051370)

올해는 조정 국면, 전장향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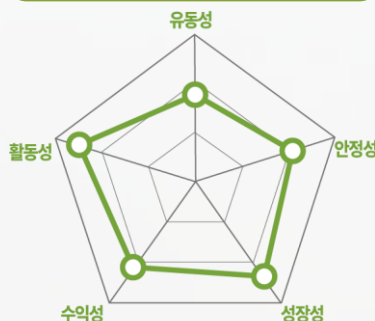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FPCB 전문 제조사로 핵심 제품은 Rigid-FPCB.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부, 디스플레이 플렉스 케이블, 고화질 카메라 모듈 등에 적용됨. FPCB 실적 대부분은 삼성그룹 스마트폰향으로 발생
- 2021년 진출한 전장용 FPCB 시장에서 매년 고성장세 기록.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전장사업부와 협력해 복미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25년 전장향 매출액은 300억원을 예상하며 전체 매출액의 약 7% 비중을 차지할 전망
- 2025년 매출액 4,291억원(-14% YoY), 영업이익 220억원(-36% YoY) 전망. 스마트폰향 주요 제품인 디지털라이저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며 2025년은 실적 조정 불가피. 다만 올해는 전장향 사업 성과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를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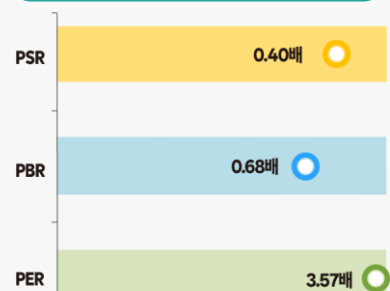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FPCB 전문 제조 업체

2003년 1월 코스닥 상장. 핵심 제품 Rigid-FPCB는 경성(Rigid) 기판과 연성(Flexible) 기판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로, 고다층·고집적 배선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부, 디스플레이 플렉스 케이블, 고화질 카메라 모듈 등 고난이도 부품에 적용됨. FPCB 매출액 대부분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로 공급되며 주로 스마트폰에 채택되고 있음

전장향 FPCB 지속 성장 중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장용 FPCB 시장 진입. 포르쉐, 폭스바겐 등 글로벌 프리미엄 OEM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포르쉐 타이칸에 채택되는 BMS용 FPCB를 공급하고 있음. BMS 외에도 차량용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전장식 파킹 브레이크, 대형 차량 디스플레이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전장사업부와 협력하여 북미 OEM 고객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025년 전장향 매출액은 300억원을 예상하며 전체 매출액의 약 7% 비중을 차지할 전망

2025년 매출액 4,291억원(-14% YoY), 영업이익 220억원(-36% YoY)

스마트폰향 매출은 3,991억원(-15.9% YoY)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역성장이 불가피한 반면, 전장향 매출은 300억원(+30.4% YoY)으로 외형 확대가 예상됨. 2025년 출시된 갤럭시 Z폴드7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S펜 적용이 제외되었고, S펜과 연동되는 디지털라이저 채용도 빠지게 되었는데, 이는 동사의 주요 고부가 제품 중 하나로 ASP(평균판매단가)와 마진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5년은 단기 실적 조정 구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전장향 성장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중장기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시기로 평가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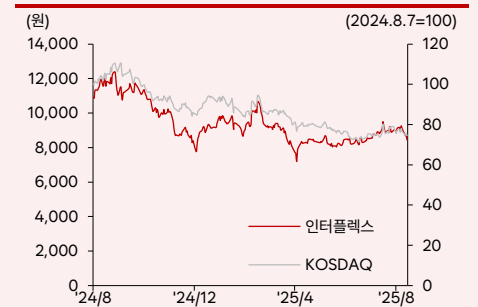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4,470	4,427	4,382	4,975	4,291
YoY(%)	38.1	-1.0	-1.0	13.5	-13.7
영업이익(억원)	32	261	216	344	220
OP 마진(%)	0.7	5.9	4.9	6.9	5.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	153	273	551	194
EPS(원)	-10	656	1,171	2,363	831
YoY(%)	적지	흑전	78.5	101.8	-64.8
PER(배)	N/A	13.9	9.1	3.9	10.1
PSR(배)	0.9	0.5	0.6	0.4	0.5
EV/EBITDA(배)	21.3	4.9	6.1	2.5	2.6
PBR(배)	2.2	1.1	1.1	0.8	0.6
ROE(%)	-0.1	8.1	13.1	22.0	6.6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2)	8,360원
52주 최고가	12,380원
52주 최저가	7,190원
KOSDAQ (8/22)	78251p
자본금	117억원
시가총액	1,95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0억원
외국인지분율	26.7%
주요주주	코리아씨키트 외 4인 47.7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2.0	-21.6	-27.6
상대주가	-8.6	-22.4	-28.5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FPCB 전문 제조 업체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FPCB(제품) 83.5%, 상품
15.8%, 임대 0.7%로 구성.
FPCB 매출액 대부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로 공급되며
주로 스마트폰에 채택됨**

인터플렉스는 1994년 7월 20일 설립된 연성인쇄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이하 FPCB) 전문 제조기업으로, 1999년 국내 최초로 폴더형 FPCB 생산을 시작하며 삼성전자를 핵심 고객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년 매출 329억원에서 2003년 2,260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6.8배 성장했으며, 이는 삼성전자향 휴대폰용 FPCB 공급 확대와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형 단말기의 급격한 보급이 맞물린 결과였다. 이러한 고성장을 발판으로 2003년 1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후 사업 확장과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2005년 영풍그룹이 전자부품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목적으로 계열사인 영풍전자와 코리아씨키트를 통해 인터플렉스 지분을 확보하며 그룹 편입이 이루어졌다. 영풍전자는 전자부품 제조 역량과 고객 네트워크를, 코리아씨키트는 PCB 분야 설계·제조 기술과 글로벌 영업력을 제공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 원재료 공동 구매, 생산·기술 협력을 통한 원가 절감 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동사는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FPCB 시장에서 비에이치, 영풍전자와 함께 'Big 3'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회사의 성장 동력은 Rigid-FPCB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군에 있다. Rigid-FPCB는 경성(Rigid) 기판과 연성(Flexible) 기판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로, 고다층·고집적 배선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는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부, 디스플레이 플렉스 케이블, 고화질 카메라 모듈 등 고난이도 부품에 필수적으로 채택되며, 30/30 μ m 수준의 초미세 패턴 구현, 다층 적층 공정, 초정밀 드릴링, 열·충격·자성차폐 복합 부착기술 등 회사가 축적한 원천기술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술력은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분야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모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전장 분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인터플렉스는 안산 본사 스마트센터(월 10만m²), 베트남 빈푹 법인(월 6만m², 후공정 포함 시 13만m²), 중국 톈진 법인(월 3.5만m²)의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한다.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실장기술) 및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방성 도전 필름) 공정 라인을 베트남에 집중 배치해 대형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며, 2024년 말 기준 전체 생산능력은 연간 약 130만m² 수준이다. 과거 산업 성장기에는 본사와 베트남 라인의 증설을 통해 삼성전자향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했고, 현재는 전장사업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 전용 라인을 신설하고 있다. 해당 설비는 2026년 3분기 완공, 2027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심 매출 구조를 전장·산업용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FPCB(제품) 83.5%, 상품 15.8%, 임대 0.7%로 구성된다. FPCB 매출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로 공급되며 주로 스마트폰에 채택되고 있다.

스마트폰용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핵심 전방산업이다. 동사는 삼성전자의 S 시리즈, 폴더블 시리즈 전 라인업에 고부가 Rigid-FPCB, 멀티레이어, 양면·단면 플렉스 제품을 공급하며, 폴더블 디스플레이, 대면적 OLED,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는 고사양 FPCB가 채택될수록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FPCB의 판매 가격과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레이어 수, 면적 크기, 패턴 정밀도가 대표적이며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부품은 구조와 재질 특성상 단가가 높게 형성된다.

스마트폰용 주요 FPCB 제품군으로는 Main/Neck/Bridge FPCB, Foldable Digitizer, 카메라 모듈용 Rigid-Flex, 배터리·NFC 안테나 플렉스 등이 있다.

전장용 매출액은 아직 비중이 적은 편이나 앞으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사업영역이다. 동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차량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히팅 솔루션용 FPCB를 공급하며 기존 사용되던 와이어 하네스를 대체하고 있다. FPCB는 와이어 하네스 대비 경량화와 조립 자동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포르쉐 타이칸, 폭스바겐 전기차 BMS에 FPCB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완성차업체로 고객사 다변화가 기대된다. 인터플렉스의 전장용 FPCB 주요 제품으로는 BMS FPCB(1m급 대형), Infotainment Rigid-Flex, Heating Solution FPCB 등이 있다.

FPCB 산업은 전방산업인 스마트폰·디스플레이·전장 산업의 기술 변화와 출하량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플래그십 모델 출시 시점(1월 S 시리즈, 8월 폴더블)보다 선행해 물량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분기에 매출액이 집중된다. 전장 부문은 채택 결정 이후 양산까지 2~3년의 개발 및 검증 기간이 필요하지만, 양산 공급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비 라이프사이클이 길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2025년 1분기 기준 종속기업으로는 베트남 법인 INTERFLEX VINA(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디스플레이용 주력 제품과 전장용 제품의 제조·후공정을 생산하며 국내 생산라인 대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절감에 탁월해 현재 판매되는 제품군 대부분이 베트남법인에서 제조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내부거래 제거 전 INTERFLEX VINA의 매출액은 2,129억원으로 인터플렉스 연결 매출액 2,175억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코리아씨키트(인터플렉스의 모회사)이다. 2025년 2분기말 기준 주주구성은 코리아씨키트 지분율 30.56%, 영풍전자 지분율 9.72%, 고려아연 지분율 6.01%, 시그네틱스 지분율 1.42% 및 기타 소액투자자 합산 지분율 52.29%로 구성된다.

연혁

1988~2003	2004~2011	2012~
1988.02 (주)코리아씨키트 FPC 생산과 발족 1994.07 (주)다성전자 설립 1996.10 코리아씨키트 3공장으로 확장이전(1,100평) 1999.08 국내 최초 FOLDER형 FPC 양산 2000.02 국내 최초 RIGID FPC 양산(삼성 납품) 2000.05 인터플렉스로 상호 변경 및 유상증자 13억8천만 원 2000.07 유상증자 5억 납입(납입 80억), 무상증자 21억(자본금 42억) 2000.10 주식 액면분할(10,000 → 500) 2000.11 자가공장으로 이전(성곡동 635-2) 2000.12 ISO 9002 획득,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1억 중자(자본금 43억) 2001.08 QS 9000 획득 2001.11 제3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산자부 장관 표창) 2002.06 ISO 14001 획득 2002.08 ISO 9001 획득 2002.11 Single PPM 획득 2002.12 시그마 관련(삼성 SDI 1사 1테마 은상 수상) 2003.01 유상증자 18억5천만 원(자본금 61억5천만 원) 2003.01 코스닥 상장	2004.06 공장 증설(신공장) 2004.12 3억3천만 불 매출 달성(세계 6위) 2005.03 대표이사 변경(송동호 → 이상주) 2005.05 영풍 계열회사 편입 2006.02 TS16949 획득 2006.11 제43회 무역의 날 '올해의 수출의탑' 수상 2007.03 대표이사 변경(이상주 → 배철환) 2009.01 중국 천진공장 SMT 라인 설비투자(350만 불) 2009.01 자동화 설비 투자 3,360만 불 달성 20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011.03 유상증자 실시(제3차 배정, 500억) 2011.04 CJ 교체, 영풍 전자제열 5개사 2011.05 Motorola Best Supplier 수상	2012.04 공장 신축 및 가동(Smart Center) 준공 2012.08 시가총액 1조 원 돌파 2014.01 대표이사 변경(배철환 → 이광식) 2015.01 베트남 공장(VINA Circuit) 준공(SMA) 2018.03 대표이사 변경(이광식 → 백동원) 2021.03 대표이사 변경(백동원 → 신일원) 2021.06 AEO 인증(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취득 2025.01 베트남 신공장 준공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제품

 단면 (Single Side)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한쪽 면에만 Land가 형성 되는 구조로, FPCB 특성 중 굽힘을 이용한 소형 가전제품의 3차원 배선이나 ODD제품의 Pick-up Module에 주로 사용됨	 양면 (Double Side) P/필름에 상하로 동박이 접착된 상태로 이 구조의 경우 Land가 상,하 모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장착할 경우 동일 크기에서 부품 밀도를 높일 수 있음
 멀티 (Multi Layer) 가전제품, 통신기기가 소형화, 고기능화 되어가는 추세로 인하여 동일한 제품 Size에 더 많은 회로 및 부품을 실장하기 위하여 제품이 다층화로 되어 가는 추세임	 R/F (Rigid Flexible) Rigid의 경성과 Flexible의 연성의 장점을 살려 SMT실장을 용이하게 하고 Flexible의 기능도 갖춘 복합제품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고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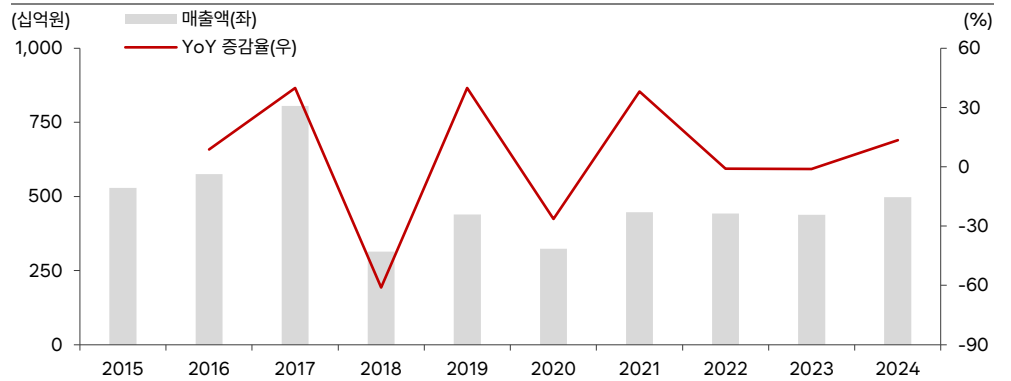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고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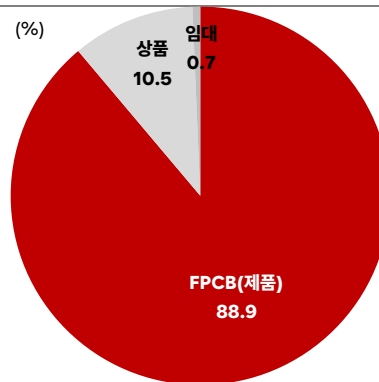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및 증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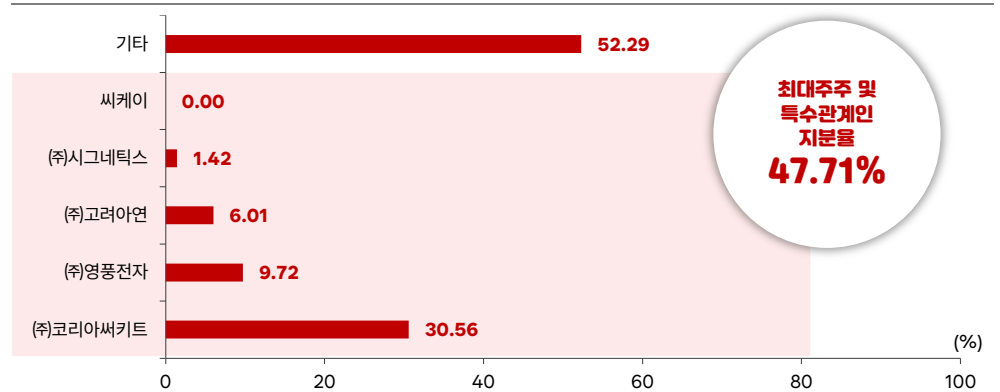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제품별 매출액 비중(2024Y 기준)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2Q25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47.71%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FPCB 산업 현황

**FPCB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3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FPCB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3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3%대가 제시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출하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장, 웨어러블, XR 등 신규 응용처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FPCB의 핵심 기술은 미세회로 형성과 다층 적층, 그리고 곡률 대응 설계 역량에 있다. 단면 제품은 소형 가전에 주로 채택되며, 양면 제품은 동일 면적 내 부품 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멀티레이어 제품은 3층 이상 적층 구조로 고집적 회로 구현에 강점이 있으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rigid-flex는 rigid와 flex 구조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폴더블 힌지 등에서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 확산은 rigid-flex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인터플렉스는 메인, 넥, 브리지, 디지털라이저 등 주요 제품군에서 50/50 μ m 및 35/40 μ m급 L/S 구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흐름에 대응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초미세 패턴화와 고다층화다. 카메라 다중화, RF 부품 수 증가, AP 고성능화로 인해 회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고다층·미세회로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초박형화와 경량화다. 폴더블, 웨어러블, XR 기기 확산으로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유전 소재와 박막 동박 채택이 늘고 있다. 셋째, 전장 신뢰성 강화다. BMS,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내 전자부품은 열, 진동, 습도 등 까다로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내열성과 저저항(Low-Resistance) 특성을 갖춘 대면적 FPCB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방산업의 흐름은 스마트폰을 넘어 전장, 웨어러블, XR로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rigid-flex 채택 강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폴더블 모델 확산으로 힌지와 디지털라이저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소형·경량 특성이 요구돼 FPCB 채택률이 높다. XR 기기는 고성능 디스플레이와 다수의 센서가 집적되는 구조로 rigid-flex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확산에 따라 BMS, 카메라, 디스플레이, 전자식 제어장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FPCB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주요 FPCB 경쟁 구도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으로
나뉘며, 한국 기업으로는
인터플렉스, 비에이치,
영풍전자가 대표적**

글로벌 주요 FPCB 업체 구도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으로 나뉜다. 일본은 니폰메크트론, 후지쿠라, 스미토모가 강세를 보이며, 대만은 Zhen Ding, Career, Flexium 등이 시장을 주도한다. 한국은 인터플렉스, 비에이치, 영풍전자가 대표 기업으로 꼽히며, 중국은 DSBJ 산하 MFLEX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이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추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대만-한국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이 저가 대량 생산으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인터플렉스가 안산 스마트센터와 베트남 빈푹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산은 월 10만m²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베트남은 전 공정과 SMT, ACF 후공정을 포함해 대량 양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 가동률은 본사 61.8%, 베트남 82.8%로 지역별 효율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는 스마트폰과 전장 수요의 계절성과 모델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전략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FPCB 산업은 스마트폰 고사양화, 폴더블 확산, 웨어러블 보급, 전장 전자화라는 다변화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은 초미세 패턴화, 고다층, rigid-flex로 집중되고 있으며, 소재와 공정의 고도화가 병행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되지만, 중국 업체의 저가 전략이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인터플렉스는 rigid-flex와 디지털라이저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향후 전장향 매출 확대가 동사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전자화 흐름 속 FPCB는 필수 부품

**BMS, 카메라, 디스플레이,
제어 스위치 등 차량 내 다양한
모듈에서 채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용 FPCB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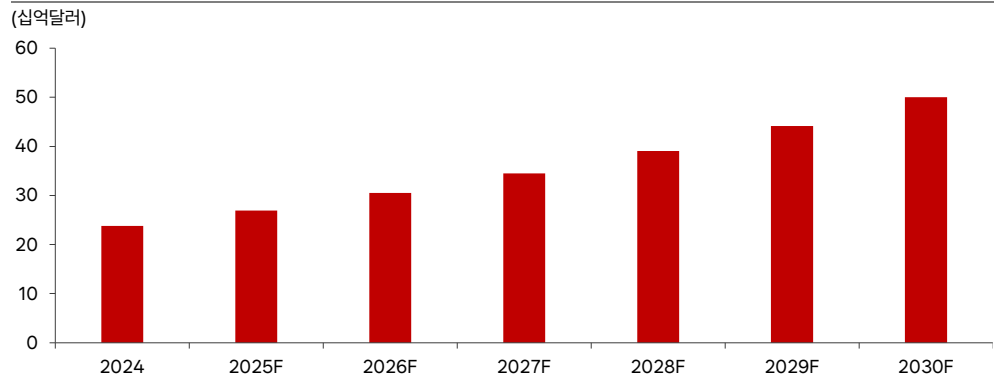
전장용 FPCB는 차량 전자화 흐름 속에서 점차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전압 배터리, 각종 센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차량 내부 배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공간 제약과 진동 환경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 하네스와 경성 기판만으로는 얇고 가벼운 배선과 곡면 설계, 고신뢰 접속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FPCB는 유연한 구조를 바탕으로 배터리팩이나 차체 굴곡을 따라 자유롭게 배선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하고, 연결 포인트를 줄여 접속 불량률을 낮추며 열·진동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완성차 업체는 설계 자유도와 모듈화 용이성, 그리고 경량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얻고 있다.

전장용 FPCB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용은 셀 전압 측정, 밸런싱, 패턴 퓨즈 기능을 수행하며 얇은 단면 또는 양면 구조가 주류다. 배터리 모듈 연결부에는 대면적·다층 구조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및 클러스터에는 리지드플렉스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각종 스위치, 히팅 솔루션 등 고온·고신뢰 환경에서 동작하는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자동차용 FPCB 시장은 2024년에서 2030년까지 기간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MS, 카메라, 디스플레이, 제어 스위치 등 차량 내 다양한 모듈에서 채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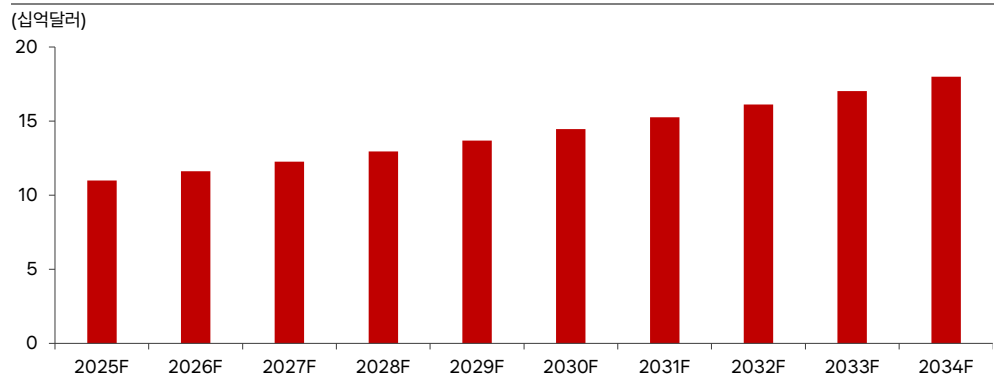
전장용 FPCB는 단순한 신규 수요 창출을 넘어 기존 부품을 대체하면서 효용을 키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네스 및 다수의 커넥터 대체다. 기존 긴 하네스 구조를 FPCB로 바꾸면 배선 경로가 단순화되고, 접속 불량과 조립 공정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한 중량 절감 효과가 크다. 배선 무게 감소는 전기차의 전비와 주행거리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정성 개선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전장용 FPCB는 차량 경량화, 공간 효율성, 신뢰성 제고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산업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전기차 확산과 자율주행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FPCB는 배터리와 ADAS, 인포테인먼트 등 핵심 전장 모듈에서의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FPCB 시장 규모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전장용 FPCB 시장 규모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전장향 FPCB 지속 성장 중

**2025년 전장향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매출의 약 7%를
차지할 전망**

인터플렉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장용 FPCB 시장에 진입했다. 스마트폰에서 고부가·고난도 제품군을 다뤄온 제조 역량은 자동차 전장 분야의 높은 신뢰성·정밀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동사는 다층·고밀도 회로 설계, 초박막 소재 처리, 곡면 대응 기술 등 고난도 공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 영역 다변화의 배경은 스마트폰향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확산에 따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전장용 BMS FPCB는 일반적으로 단면·양면 구조가 주류를 이루지만, 면적이 최대 1m에 달하는 대형 제품군으로서 스마트폰향 대비 ASP(평균판매단가)가 현저히 높아 실적 기여도가 크다.

전장용과 스마트폰용 FPCB의 주된 차이는 면적·두께, 레이어 수, 기판 경성화 정도이다. 전장은 배터리팩, 전장 디스플레이, 차량용 카메라 등 대형 모듈 부품에 적용되므로 넓은 면적·높은 기계적 강도·열·진동·습도에 대한 내구성이 필수적인 반면, 스마트폰은 다층 고집적, 초박형, 곡면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인터플렉스는 Rigid-Flex 복합 설계 및 양산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전장 분야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했다. 또한 동사는 삼성전자로 오랜 기간 제품을 공급하며 축적한 품질 신뢰성·대응력·글로벌 레퍼런스가 전장향 진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포르쉐, 폭스바겐 등 글로벌 프리미엄 OEM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포르쉐 타이칸에 채택되는 BMS용 FPCB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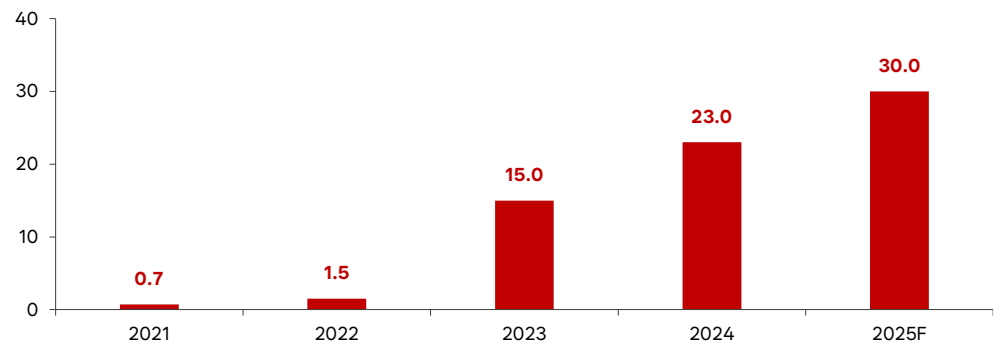
성과는 2023년 일부 제품의 양산 개시 시점부터 본격화되었다. 2022년에는 개발용 샘플 공급이 전장향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간 20억원 수준의 매출에 그쳤으나, 2023년 양산 개시 후 전장향 매출은 15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23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인터플렉스는 BMS 외에도 차량용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대형 차량 디스플레이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전장사업부와 협력하여 북미 OEM 고객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 대응을 위해 동사는 모회사 코리아씨키트와 합작으로 베트남에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 중이다. 베트남 JV는 2024년 6월 설립되어 1차 자본금 2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 3분기 건물 완공 및 4분기 설비 셋업을 거쳐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은 국내 대비 인건비가 1/10, 유틸리티 비용이 30% 이상 저렴해, 북미 고객사향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전장향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매출의 약 7%를 차지하며 전년 4.6%에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북미 고객사향 매출은 개발 샘플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양산 매출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장향 고객사의 수주 물량 증가, 국내 대기업 전장사업부와의 시너지 강화 등을 통해 인터플렉스의 전장용 FPCB 매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장용 FPCB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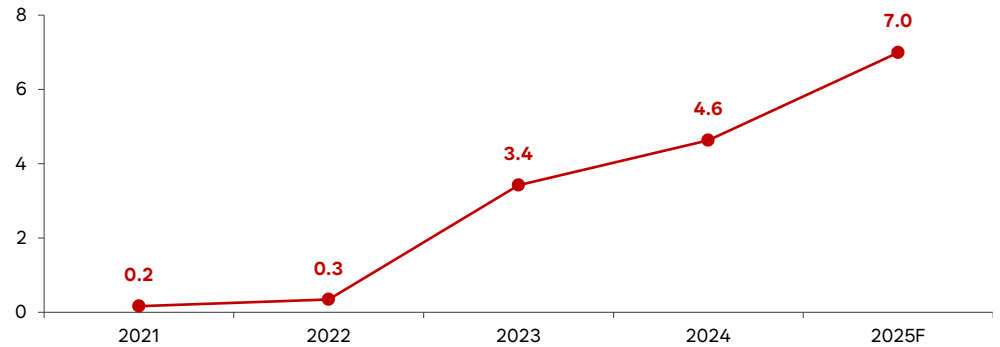
(십억원)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체 매출액 대비 전장용 FPCB 매출액 비중 추이 및 전망

(%)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장용 FPCB 제품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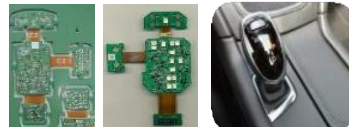
INFORTAINMENT

- Layer : 2L~4L
- OLB TYPE (Fine Pattern)
- Pattern Gap 40/40 μ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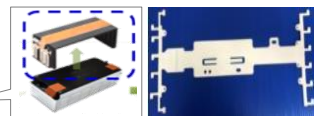
ETRS KNOB FPCB

- Layer : 3L~6L
- Rigid-flex PCB
- Materials : FR4 + 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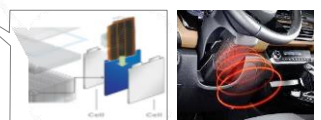
Battery Module FPCB

- Layer : 1L (Dual Access) ~ 2L
- Battery Sensing, Pattern Fuse
- Materials : PEN, PI



Heating Solution FPCB

- Layer : 1L~2L
- Heating solution (Max 250°C)
- Battery cell heating, Knee warmer, etc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2024년 매출액 4,975억원(+14% YoY), 영업이익 344억원(+59% YoY) 기록**

**2024년 전방산업별 매출액은
스마트폰향
4,745억원(+12.1% YoY),
전장향
230억원(+23.3% YoY)으로
추정**

2024년 연간 매출액은 4,975억원(+13.5% YoY), 영업이익 344억원(+58.8% YoY)을 기록했다. 전방산업별 매출액은 스마트폰향 4,745억원(+12.1% YoY), 전장향 230억원(+23.3% YoY)으로 추정되며, 주요 제품별 매출액은 FPCB 제품 매출액 4,421억원(+18.9% YoY), 상품 매출액 521억원(-17.0% YoY), 임대 수익 33억원(-11.1% YoY)으로 구성되었다.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은 스마트폰향 매출 확대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가 연간 출하량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프리미엄 모델인 울트라향 PCB 공급이 확대되면서 단가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Z 폴드6향 디지털타이저 매출도 실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타이저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ASP(평균판매단가)가 높아, 공급 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체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구조다. 이러한 제품 믹스 개선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상승(+2.0%p YoY)했다. 원가 측면에서도 주요 원재료 조달 부담 완화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반되며 이익 개선 폭을 키웠다.

전장향 사업은 2023년 150억원에서 2024년 230억원으로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규모 자체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매출 비중이 5%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스마트폰향 단일 산업 의존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기차 확산에 따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수요와 ADAS 등 첨단 전장 부품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객사와의 거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전장향 매출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은 스마트폰향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 해였다. 특히 울트라향 PCB 및 폴더블 디지털타이저 공급 확대가 전사 실적을 견인했으며, 전장향 매출이 가시적인 규모로 성장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2025년 연간 매출액 4,291억원(-13.7% YoY), 영업이익 220억원(-36.0% YoY) 전망

**2025년 스마트폰향 고부가
제품의 매출 공백으로
전사 실적 둔화 불가피**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1,317억원(-1.0% YoY), 영업이익 86억원(-3.3% YoY)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스마트폰 부품 수요의 정체와 고객사 재고 조정의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2분기에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방 스마트폰 신제품 매출 구조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매출액 858억원(-40.9% YoY), 영업이익 18억원(-81.5% YoY)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반까지 하락하며 수익성이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2,175억원(-21.8% YoY), 영업이익 103억원(-43.8% YoY), 영업이익률은 4.8%(-1.8%p YoY)를 기록했다.

2025년 출시된 갤럭시 Z폴드7은 전작 대비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S펜 적용이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S펜과 연동되는 디지털타이저 채용도 빠지게 되었는데, 이는 동사의 주요 고부가 제품 중 하나로 ASP(평균판매단가)와 마진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이저 매출의 부재는 2분기 실적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Z폴드7 라이프사이클이 지속되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스마트폰향 매출 구조상 단기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4,291억원(-13.7% YoY), 영업이익 220억원(-36.0% YoY)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향 매출은 3,991억원(-15.9% YoY)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역성장이 불가피한 반면, 전장향 매출은 300억원(+30.4% YoY)으로 외형 확대가 예상된다. 전장향 비중은 7%(+2.4%p YoY)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스마트폰향 부진을 일부 보완하는 동시에 중장기 사업 구조 다변화 전략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품별로는 FPCB 매출이 3,666억원(-17.1% YoY)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상품 매출은 593억원(+13.8% YoY), 임대 수익은 32억원(-2.6% YoY)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품 매출의 성장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이익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향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25년은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향 고부가 제품의 매출 공백으로 인해 전사 실적 둔화가 불가피한 해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장향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객사 다변화와 BMS·ADAS 등 고부가 전장 제품 수요 확대를 통한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은 단기 실적 조정 구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전장향 성장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중장기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시기로 평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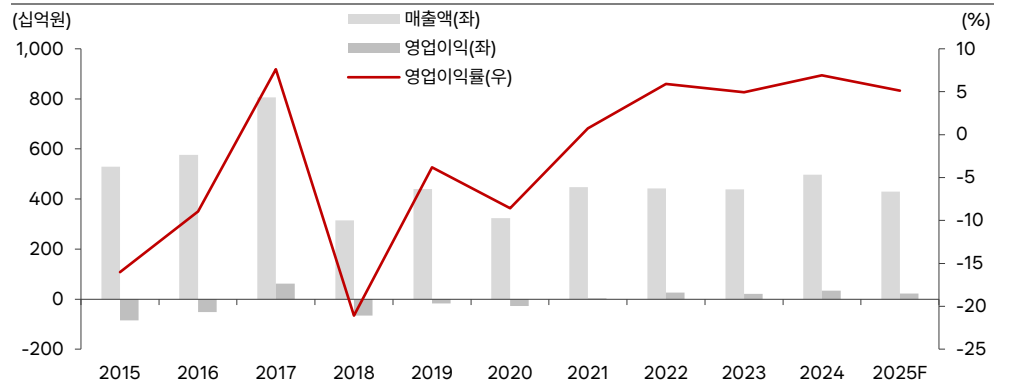
연간 실적 테이블

(단위: 십억원, %)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4470	4427	4382	4975	4291
스마트폰향 매출액	4463	4412	4232	4745	3991
전장향 매출액	07	15	150	230	300
영업이익	32	261	216	344	220
영업이익률	07	59	49	69	51
당기순이익	-02	153	273	551	194
당기순이익률	-01	35	62	111	45
YoY					
매출액	38.1	-1.0	-1.0	13.5	-13.7
스마트폰향 매출액	N/A	-1.1	-4.1	12.1	-15.9
전장향 매출액	N/A	114.3	900.0	53.3	30.4
영업이익	흑전	715.5	-17.0	58.8	-36.0
당기순이익	적지	흑전	78.5	101.8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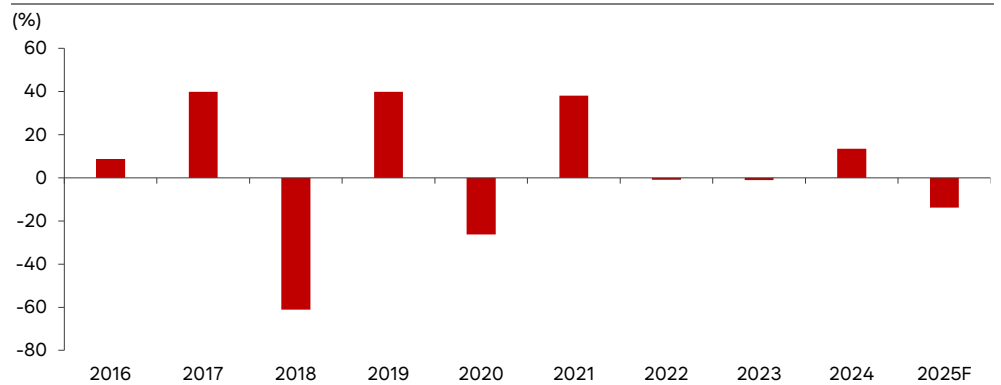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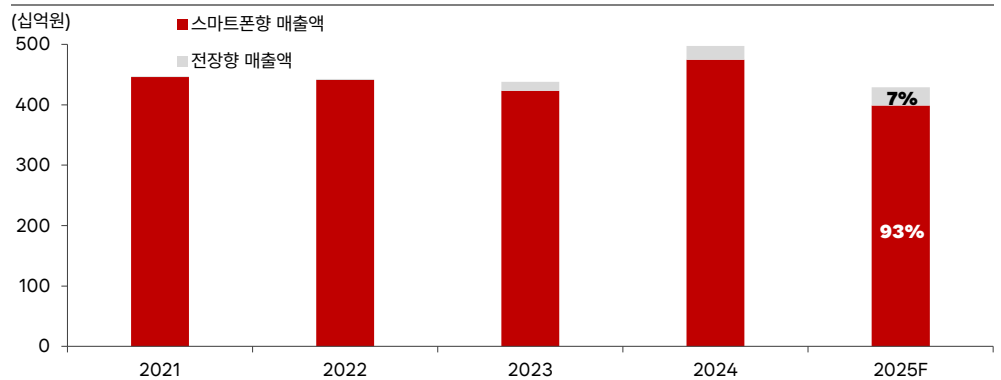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YoY 증감률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인터플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F PER 10.1배에서 거래 중

**향후 기업가치는 전장향 FPCB
공급 성과 및 매출 비중 확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

인터플렉스의 현재 주가는 2025년 예상 EPS 기준 PER 10.1배, 예상 BPS 기준 PBR 0.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FPCB 업체인 비에이치(2025F PER 13.2배, PBR 0.7배) 대비 할인받는 수준이며, 핸드셋 업종 평균(2025F PER 35 배)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업종 내 일부 업체가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높은 멀티플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인터플렉스는 전방산업 부진과 제한적인 사업 다변화로 인해 멀티플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3년간 뚜렷한 변동성이 나타났다. 2023년에는 스마트폰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사이클 효과로 단기 반등에 성공했으나, 2024년 중반 이후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12MF PER 밴드 기준으로 2024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12배 수준까지 멀티플이 확장되었으나, 하반기 실적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10배 내외로 회귀하였다. PBR 또한 1.0배를 상단으로 제한된 가운데, 최근에는 0.6~0.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인터플렉스 추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주력 전방산업인 스마트폰용 매출이 구조적으로 부진해 단기 실적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장향 FPCB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 비중이 여전히 한 자릿수 후반에 불과해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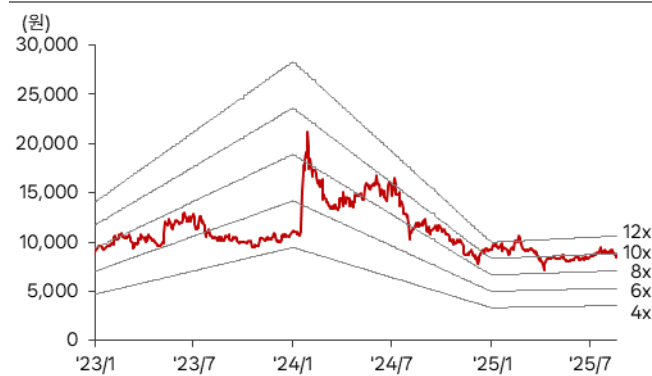
과거 주가 밴드를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 초와 같이 신제품 사이클이나 특정 고부가 부품 매출 확대가 실적과 직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멀티플이 확장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후 흐름에서는 스마트폰 부문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며 주가가 밴드 하단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결국 향후 기업가치는 단기 이벤트보다는 전장향 매출의 성장 지속성과 매출 비중 확대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장향 사업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의미가 있으나, 가시적인 매출 비중 확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플렉스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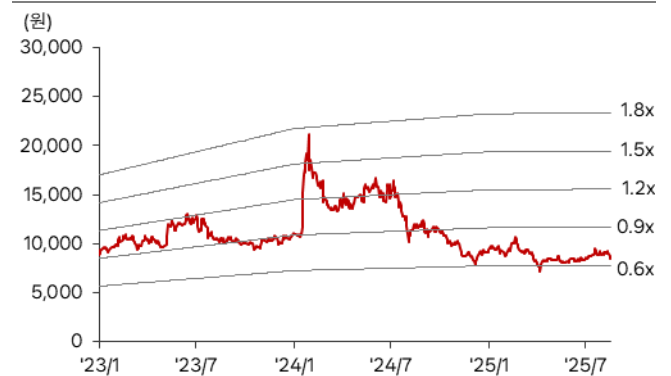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2MF PE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2MF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마트폰 부품 업체 밸류에이션

(단위: 원, 십억원, 배, %)

기업명	주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024Y	2025F	2024Y	2025F	2024Y	2025F	2024Y	2025F	2024Y	2025F
인터플렉스	8,360	195	497.5	429.1	34.4	22.0	3.9	10.1	0.8	0.6	22.0	6.6
영풍	38,650	739	2,787.4	N/A	-160.7	N/A	N/A	N/A	0.5	N/A	-7.9	N/A
대덕	7,790	274	1,267.2	N/A	8.4	N/A	10.3	N/A	0.4	N/A	2.9	N/A
심텍	23,600	757	1,231.4	1,358.9	-47.0	29.5	N/A	N/A	0.8	1.8	-6.8	-1.2
비에이치	16,360	564	1,754.4	1,747.1	87.1	56.8	8.9	13.2	1.3	0.7	11.2	6.2
이수페타시스	59,100	4,338	836.9	1,020.9	101.9	186.1	23.8	29.0	5.3	8.1	24.9	33.5
코리아씨키트	11,400	292	1,407.0	1,401.6	-33.2	31.5	N/A	12.2	0.8	0.8	-18.6	3.4
와이엠티	9,840	161	137.2	N/A	3.6	N/A	N/A	N/A	1.4	N/A	-1.4	N/A
삼성전기	154,700	11,761	10,294.1	11,052.2	735.0	819.9	14.2	20.1	1.5	1.3	8.3	6.8
시노펙스	6,640	583	238.3	243.7	21.2	21.8	18.6	30.5	3.1	3.1	18.6	10.0
티엘비	27,000	265	180.0	245.7	3.4	21.7	35.5	15.5	1.1	2.1	3.2	13.4

주: 인터플렉스 실적은 한국IR협회의 추정치,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주가는 8월 22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단일 고객사 비중이 높은 점은
동사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인터플렉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단일 고객사 의존도에 있다. 동사의 매출은 여전히 특정 글로벌 고객사(삼성전자) 비중이 절대적이며,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90% 이상이 삼성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력 제품인 FPCB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채용되고 있어,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 및 제품 전략 변화가 곧바로 동사의 실적에 직결된다. 2025년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에서 디지털타이저가 제외되면서 고부가 제품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고객사 제품 전략 변화가 동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둔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 압박은 동사의 이익률을 훼손할 수 있는 상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전장향 FPCB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가며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 후반에 머물러 있어 고객사·산업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단일 고객사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되는 한, 실적 변동성과 수익성 훼손 가능성은 불가피하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4,470	4,427	4,382	4,975	4,291
증가율(%)	38.1	-1.0	-1.0	13.5	-13.7
매출원가	4,098	3,955	3,931	4,487	3,754
매출원가율(%)	91.7	89.3	89.7	90.2	87.5
매출총이익	372	472	451	487	537
매출이익률(%)	8.3	10.7	10.3	9.8	12.5
판매관리비	340	212	235	144	317
판매관리비율(%)	7.6	4.8	5.4	2.9	7.4
EBITDA	192	393	348	498	371
EBITDA 이익률(%)	4.3	8.9	7.9	10.0	8.6
증가율(%)	흑전	105.1	-11.5	43.1	-25.6
영업이익	32	261	216	344	220
영업이익률(%)	0.7	5.9	4.9	6.9	5.1
증가율(%)	흑전	715.5	-17.0	58.8	-36.0
영업외손익	29	82	36	193	24
금융수익	179	302	273	269	204
금융비용	152	254	187	108	207
기타영업외손익	3	34	-51	32	27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55	-134	12	-29	-5
세전계속사업이익	6	209	264	508	239
증가율(%)	흑전	3,330.1	26.3	92.5	-52.9
법인세비용	8	56	-9	-43	46
계속사업이익	-2	153	273	551	19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	153	273	551	194
당기순이익률(%)	-0.1	3.5	6.2	11.1	4.5
증가율(%)	적지	흑전	78.5	101.8	-64.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	153	273	551	194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2	436	137	644	422
당기순이익	-2	153	273	551	194
유형자산 상각비	156	129	131	154	150
무형자산 상각비	4	3	1	0	0
외환손익	24	67	23	8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33	-56	-256	9	108
기타	63	140	-35	-78	-3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7	-129	58	-118	-31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104	0	36
유형자산의 감소	32	26	4	3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99	-111	-93	-121	-350
기타	0	-44	43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3	-403	-53	-3	-5
차입금의 증가(감소)	-50	-400	-50	0	-5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3	-3	-3	-3	0
기타현금흐름	0	-0	0	8	2
현금의증가(감소)	-8	-96	142	531	106
기초현금	345	337	241	383	914
기말현금	337	241	383	914	1,020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763	1,235	1,503	2,051	2,020
현금성자산	337	241	383	914	1,020
단기투자자산	2	42	1	0	0
매출채권	806	478	704	745	613
재고자산	490	360	330	236	252
기타유동자산	128	116	86	156	134
비유동자산	1,799	1,633	1,512	1,597	1,790
유형자산	1,445	1,036	993	1,095	1,295
무형자산	5	6	8	8	7
투자자산	300	165	74	52	45
기타비유동자산	49	426	437	442	443
자산총계	3,562	2,869	3,015	3,649	3,810
유동부채	1,611	837	760	825	792
단기차입금	450	50	0	0	0
매입채무	924	562	452	322	358
기타유동부채	237	225	308	503	434
비유동부채	159	54	51	6	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59	54	51	6	5
부채총계	1,770	891	810	831	797
자배주주지분	1,792	1,978	2,205	2,818	3,012
자본금	117	117	117	117	117
자본잉여금	2,652	2,652	2,652	2,652	2,652
자본조정 등	-14	-14	-14	-14	-1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69	87	55	113	113
이익잉여금	-1,031	-863	-605	-50	143
자본총계	1,792	1,978	2,205	2,818	3,012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13.9	9.1	3.9	10.1
P/B(배)	2.2	1.1	1.1	0.8	0.6
P/S(배)	0.9	0.5	0.6	0.4	0.5
EV/EBITDA(배)	21.3	4.9	6.1	2.5	2.6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0	656	1,171	2,363	831
BPS(원)	7,683	8,480	9,452	12,079	12,910
SPS(원)	19,162	18,978	18,783	21,325	18,396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0.1	8.1	13.1	22.0	6.6
ROA	-0.1	4.8	9.3	16.5	5.2
ROIC	-1.2	14.3	14.5	19.4	11.9
안정성(%)					
유동비율	109.5	147.6	197.9	248.5	255.1
부채비율	98.8	45.0	36.7	29.5	26.5
순차입금비율	6.9	-9.5	-15.7	-31.2	-32.8
이자보상배율	2.9	32.7	252.6	1,395.5	964.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3	1.4	1.5	1.5	1.2
매출채권회전율	6.4	6.9	7.4	6.9	6.3
재고자산회전율	11.5	10.4	12.7	17.6	17.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인터플렉스	X	X	X

2025년 7월 3일 기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8.26	인터플렉스-올해는 조정 국면, 전장향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
2022.11.23	인터플렉스-FPCB, 장기 성장궤도 이상없음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